

나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제작한 세계지도인 「관여만국전도」라고 해요.  
2011년 실학박물관에서 원형대로 복원했어요. 나를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!

실학박물관 1228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6 실학박물관 전화 031)579-6000~1 운영시간 10:00~18:00 휴관일 1월1일, 설·추석 당일 및 매주 월요일

초등학교  
저학년용

# 박물관 속, 실학소풍



조선시대에는 북쪽에 있는 청나라(중국)에 연행사를 보냈어요.  
연행사는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해주었어요.  
점선을 따라 조선시대 연행사길을 완성해 주세요!



조선시대에는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.  
그 중에서 우리의 문화를 공부하고,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공부한 사람들을  
**'실학자'**라고 해요. 우리 '실학박물관' 안에 숨어있는 실학자들을 만나보고  
**가장 가까운 소개말과 연결해 주세요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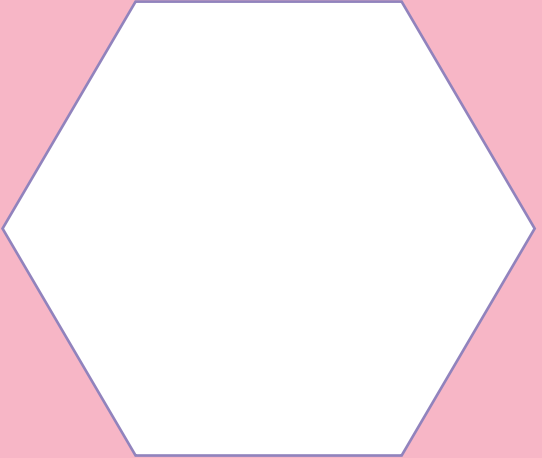
우리 박물관 **'천문과 지리실'**에서  
**나의 모습과 이름을 찾아 그려주세요!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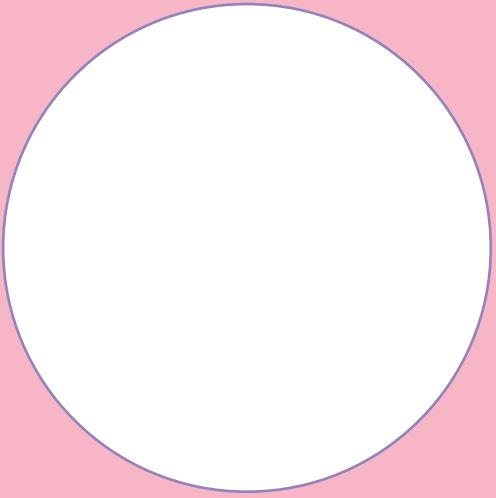
나는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 
백성들을 위하여 **'대동법'**을  
주장했어요. 그리고  
청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 
초상화도 선물받았답니다.  
**'잠곡유고'**라는 책도 썼어요.



나는 조선시대 **'유금'**이  
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 
만든 아라비아식 휴대용  
**천문시계**예요. 나를  
이용하면 하늘에 있는 별을  
이용해서 날짜와 시간을  
알 수 있어요.



나는 청나라에 다녀와서  
보고 배운 내용을 책으로  
썼는데 이름은 **'열하일기'**예요.  
그리고 **'양반전'**이라는 소설을  
써서 조선의 문제점을 이야기  
했어요.



나는 **'남양주 마재마을'**에서  
태어났고 500권이 넘는  
책을 썼어요. 그 중 관리로써  
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를  
기록한 **'목민심서'**라는 책이  
대표적이예요.



나는 해를 이용하여 시간과  
날짜를 알 수 있어요.  
나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 
**'해시계'**로 솔뚜껑을 두집어  
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.

